군산-우즈벡 아사카시, 농업 협약

기술협력 · 우호증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와 농업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와 농업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를 방문해 농업제한에 대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김병래 소장을 단장으로 한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농업교류 국외시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7월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를 방문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군산시와 안디잔주가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교육 등 농업 제반 분야에 대해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31일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시장 엘킨존)가 농업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업교류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군산시와 안디잔주가 상호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찰단 일행은 방문 기간에 안디잔주지사와의 면담 및 업무협약체결, 아사카시청 방문, 토마토재배 시설하우스 견학, 안디잔주 농업대학 방문, 유가공회사 방문, KOPIA 방문 등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농업시설과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농업발전 기술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농업분야 교류 추진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인 전문교육 등 단계적 확대추진 △농업혁신 적극 협조 등이 포함돼 있다.

농업시찰단에 참여한 딸기재배 농업회사 우후(대표 이정근)은 아사카시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5년간 10ha규모의 농장에 1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방정책을 펴고 있는데 행정, 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시설 등에 관심이 많고 특히 농업기술교육을 원하고 있다.

김병래 소장은 "이번 방문으로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양국 간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분야 교류 강화 및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사랑의 초인등 설치 지원 사업 실시

군산시 수송동, 청력 문제 있는 10세대

군산시 수송동(동장 김경배)과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배용수)가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다.

4일 수송동에 따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난청어르신 및 청력에 문제가 있어 외부 방문을 인지하기 어려운 10세대에 초인등을 설치하는 '사랑의 초인등'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초인등을 후원한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역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초인등'이란 현관문이나 출입구에 발신기를 설치해 방문객이 밖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집 안의 수신기에서 무선 센서가 작동하여 시각 정보인 불빛을 통해 바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초인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초인등은 비상 알림 역할도 할 수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난청인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초인종 소리를 놓치더라도 초인등의 불빛을 통해 긴급 상황이 생겼음을 인식 할 수 있다.

배용수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초인등 설치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외부 세상과의 소통을 돕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배 수송동장은 "초인등을 지원해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배용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송동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김진희 박사 초빙 공무원 1200여명 대상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자녀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올 연말까지 총 5차례에 걸려 전체 공무원과 함께 '다문화 인권교육'을 받는 가운데, 익산시는 4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분야의 전문가인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박사를 초빙 '다문화인권과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공직자의 역량'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진행된 교육은 다문화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 증진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존중문화 형성 등 유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정헌율 시장이 지난달 27일 전북도청 중앙기자실을 방문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뒤 지역 이주여성단체에게 5차례에 걸쳐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념식 대신 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모든 부서가 다문화와 관련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다문화 담당 부서는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문화 인권교육에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다문화관련 정책을 발굴해 선진 다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4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김진희 박사를 초빙 다문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익산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익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최장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익산부송1주공아파트, 동산주공아파트) 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윤동욱 군산부시장, 공식 업무 돌입

윤동욱 군산시부시장이 각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윤 부시장이 신속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 취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지난 3일부터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담당관, 경제항만혁신국 등 부서별 그간 진행해온 현안 · 쟁점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심폐소생술 자격과정 진행

총 109명 자격증 취득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BLS(Basic Life Support) 자격과정을 진행해 109명이 심폐소생술 자격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기본 인명구조술 교육을 통해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동영상 자료를 통한 성인, 아동, 소아 심폐소생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이어 필기 및 실습평가를 거쳐 의료인 과정(BLS provider) 63명, 일반인 심화과정 46명 등 총 109명이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지수(소방행정학과 4학년)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제6차 노사 민정 실무협의회 개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제6차 노사 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서지만 위원장(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6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상생형 일자리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 전기차 생산 투자와 새만금에 전기차 협동화 단지 투자계획의 심도있는 논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있어 상생협약의 의제별 핵심내용을 토론주제로 삼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군산=김정훈 기자